



중부지방 폭우 ... 문 대통령, 이재민 위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마지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전공의 집단휴진

오늘 하루 총파업 나서 ... 광주·전남서 463명 참여할 듯
국민 대부분 공공의대 설립 등 찬성 ... 대화로 해결해야

국민적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만류에도 전공의(인턴-레지던트)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7일 하루 집단휴진을 택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지방의사제 도입 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다. 코로나 19 와중에 전공의들이 집단 진료 거부에 나서기로 하면서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주요 병원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일부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6일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7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 동안 진행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주관의 집단 진료 거부에 광주·전남지역 전공의 463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의들은 이날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집회를 연다.

조선대병원과 광주기독병원에서는 각각 142명, 46명의 전공의 전원이 파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병원에서는 전공의 314명 중 160명이 이날 집단 진료 거부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보훈병원은 전공의 27명 중 15명이 파업에 동참한다. 전남에서는 화산전남대병원과 순천 성가톨릭병원에서 각각 92명, 8명 등 100명의 전공의가 진료 거부에 나선다. 광주권 의대생들도 집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파업을 주도한 대전협이 파업 목적 달성을 위해 중환자실·분만실·수술실·투석실·응급실 등 필수 진료 인력까지 진료 거부에 나서달라고 독려하는 상황이어서 곳곳에서 진료 지연 등 혼선이 예상된다.

전남대 등 주요 병원은 진료 지연 등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문의 대체 투입 등 비상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자신들의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 개원을 중심으로 대한의사회가 2차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도 내놨다.

정부는 최근 의대 정원을 향후 10년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을 늘리고, 전남 지역 등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방침을 밝혔다. 감염병 대처를 위한 공공의

료 강화, 도시·농촌 의료 격차 해소 등을 위해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회 등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공공 의대 설립·원격의료·협약 급여화’ 방침을 4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총파업을 불사하며 지지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최근 성명을 내고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본래의 취지인 지역·공공·필수의료 활성화가 아닌, 현재도 왜곡되어있는 의료를 더 왜곡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자승자박 정책”이라고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다수 국민이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계 투쟁 동력이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8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의대 정원 확대 공감도’ 조사에서 응답자 58.2%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반대는 24%에 그쳤다. (무선 80%-유선 20% 무작위생성 표집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 실시. 응답률 5.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일부 의료 전문가, 시민단체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규모보다 많이 의사들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과)는 지난 3일 전남 동부권 의문들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와 비교하면,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1500명씩, 오는 2050년까지 30년간 늘려야 적정 수준의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 감염병·외상·외과학자·취약지 보건 의료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만 최소 4500-8700명의 의사가 부족하며, 해소를 위해선 시도별 부족 인력을 고려해 향후 10년간 필수 의료 분야에서만 모두 9000명의 의사를 추가 배출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도 최소 5000명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답화문을 내고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진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경우에 대한 대비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인들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낙연 “정권재창출” 목소리 높이고 김부겸·박주민 호남 표심 공략 나서

내일 민주당 광주·전남 대의원대회 ... 8·29 전당대회 분기점

오는 8일 광주·전남에서 열리는 더불어 민주당 사·도당 대의원대회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전체 80여만 명의 권리당원 중 호남 권리당원이 20여 만명에 달하고, 과거 전당대회에서도 ‘호남의 선택’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편>

이에 따라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낙연 의원은 그동안 말을 아꼈던 ‘조용한 경선’ 분위기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정권 재창출’을 강조하는 등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이 의원의 행정수도에 대한 철학 등을 집중 공격하면서 세를 불릴 태세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광주, 오후 2시 30분 남악에서 각각 광주시당·전남도당 대의원 대회를 치른다. 코로나19 여파로 100여명 안팎의 상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권 주자들은 광주·전남 현안 사업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공약 등을 발표한다.

특히, 그동안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하는데도 흥행에도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날 광주·전남 대의원대회에서는 당권 주자들의 ‘강한 메시지’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의원 측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라는 게 이날 메시지의 핵심이며, ‘정권재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도 담길 것”이라면서 “그동안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정권재창출을 강조하지 않았지만 광주를 시작으로 정권재창출에 대한 당원들의 의지를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의원대회 전날인 7일 광주를 찾아 조직을 정비하고, 전남도 김영록 지사와 차담회, 의회 의정단·의원 간담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부겸 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호남 표심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은 6일 밤 10시 40분 전주MBC가 주관하는 전북 권역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이 의원의 격차 줄이기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제기했던 이 의원의 행정수도에 대한 과거 부정적 발언과 대표 임기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미래 세대에 대한 비전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또 비 ... 광주·전남 오늘 최대 150mm

광주·전남지역에 8일까지 돌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6일 “7일과 8일 사이 광주·전남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8일에는 시간당 50mm 내외로 많은 비가 오겠다”고 내다봤다.

7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0~150mm이며, 남해안 등 일부 지역에는 200mm 이상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8일에도 저기압이 서해상으로 다가와 광주·전남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겠으며, 9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10일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7일 아침 최저기온은 24~25도, 낮 최고기온은 26~28도 분포를 보이겠으며 8일 아침 최저기온은 24~26도, 낮 최고기온은 27~28도 분포를 보이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8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라며, 특히 국지적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짧은 시간 동안에 계속되거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산간, 계곡 등의 야영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19 수상구조대 인력 총원 시급 ▶6면
책세상 - ‘색의 역사’ ‘남극이...’ ▶14·15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기름진 형 피부엔? 브로앤팁스 네버오일리 올인원



• 전국 아리파움 매장을 통해 구입이 가능합니다.
• 브로앤팁스 공식홈페이지 | www.brontips.com • www.instagram.com/brontips • 고객센터 080-023-5454(수신자 요금부담)